

GLOBAL HUF

2017 AUTUMN

Vol. 97

HUF

GLOBAL HU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GAZINE
2017 AUTUMN

Vol. 97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 031.330.4114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am HUFS



2017 HUFS-QS Subject Focus Summit

나의 눈은 세계를 봅니다.
나의 귀는 세계를 듣습니다.
나의 입은 세계를 말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춤추는 나는 바로 **HUFS**입니다!

“THE HUFS LEAGUE”
꿈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 전 세계 94개국 647개 대학/기관과 교류



201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7.12.30(토) 10:00 ~ 2018.1.2(화) 18:00

GLOBAL
HUFS

vol. 97

**HUFS,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길’을 논하는 거점이 되다**

Special Theme	HUFS Interview	04	세계번역가연맹(FIT) 한국인 최초 이사 선임 곽중철_통번역대학원 교수 한미 대기질 공동관측 프로젝트(KORUS-AQ) 참여 이태형_환경학과 교수 제31대 신임 총동문회장 민동석(노어과 73)_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제19대 유네스코 사무총장 모교 후배를 위해 장학금 기부 고혜수(GBT학부 16)
	Special Theme	12	HUFS,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길’을 논하는 거점이 되다
	Special Report 1	14	HUFS, 국내 최초 인문학 주제의 QS Summit 개최
	Special Report 2	18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길
	HUFS Explore	20	서울캠퍼스 건설기획팀
	Global Memoirs	22	2017년도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을 다녀와서
	HUFS Table Talk	2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그리고 HUFS
	Global Issue	28	행복지수 세계 1위, 덴마크의 비결 ‘취계(Hygge)라이프’ 박노호_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HUFS Books	30	지식출판원 새로 나온 책
	HUFS News		
Alumni & Donation News	HUFS Topic	34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초청 특강 2017 제4차 HUFS 미주동문연합회 과테말라 총회 개최 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 개막식 개최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개최
	HUFS Today	38	
	HUFS 학술 소식	44	
	HUFS 교수 소식	46	
	사이버한국외대 소식	47	
	HUFS 사업지원처 소식	48	
	동문 소식	51	
	주요동문 인사	52	
	발전기금 소식	53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54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식지
2017. AUTUMN Vol.97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54년 한국 최초로 외국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개교하여, 45개의 전문화된 외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인문, 상경, 사회, 법, 이공학을 아우르는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선도 대학을 지향합니다.

발행일 2017. 10. 13. 발행인 김종덕 편집인 임대근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2. 2173. 2093
제작대행 (주)꽃피는청춘 가격 7,000원



세계번역가연맹(FIT) 한국인 최초 이사 선임
곽중철_통번역대학원 교수



Kwak Joong Chol

HUFS INTERVIEW



Lee Tae Hyung

한미 대기질 공동관측 프로젝트(KORUS-AQ) 참여
이태형_환경학과 교수



Min Dong Seok

제31대 신임 총동문회장
민동석(노어과 73) _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제19대 유네스코 사무총장



Ko Hye Soo

모교 후배를 위해 장학금 기부
고혜수(GBT학부 16)

Kwak Joong Chol

세계번역가연맹(FIT) 한국인 최초 이사 선임
곽중철_통번역대학원 교수

한국인 최초로 세계번역가연맹(FIT) 이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요. 지난 여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17 연맹 총회'에 참석하면서도 제가 이사로 선임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연맹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1년 만에 이사로 뽑힌 사례가 전무할 뿐 아니라 세계 번역계에서도 국력이 관건인데 여전히 한국어는 소수 언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맹 설립 후 65년간 세계번역가연맹에 소속된 모든 회원 단체는 유럽 중심으로 움직여왔고, 17명의 이사 중 아시아인은 3년 전 선임된 중국인과 저 단 두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가 최근 10여 년간 한류를 중심으로 관심을 끌긴 했어도 아직은 힘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이 연맹의 이사로 선임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임기 3년 간 세계통번역사들과의 친선과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 한국과 한국어를 알려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 3년 동안은 주로 어떤 임무를 맡아 진행하시나요? 세계번역가연맹은 55개국 8만여 번역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언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됐지요. 따라서 연맹 이사진들은 자주 화상회의를 열고, 1년에 한 번씩 한자리에 모여 AI 통번역

과 같은 시급한 통번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통번역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저 또한 16명의 이사들과 함께 당대 통번역사들의 전문성과 이익을 지키는 데 힘을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에 아시아태평양 통번역가포럼(APTIF)이 2019년 제 9차 포럼의 무대로 약 20년 만에 한국을 선택해 HUFS와 한국통번역사협회(KATI)가 공동 주최하도록 했으며, 저를 이사에 선임한 것은 한국과 한국어의 힘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2019년 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019년은 우리 통번역대학원의 설립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꿈을 키우는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셨습니까. 1세대 통번역가로서 후배들에게 전하는 격려와 조언을 전해 주십시오. 후배들은 현재 희망보다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설 겁니다. AI 통번역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번역회사들의 막강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간 통번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통번역 분야에서도 인간과 AI가 윈윈(WIN-WIN)하는 상생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언어는 체스나 바둑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 지능의 최고 영역이기에,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요. 따라서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완전히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AI 통번역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영역이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편 세계 속에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써왔을 뿐 아니라, 지금 꿈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는 후배들이 뒤를 이어 더 크고 훌륭한 일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함께 가야지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며 성장해갈 통번역 전문가들이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은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AI가 인간을 보조해 굳은 일을 빠르게 처리해주면 인간은 더 높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이지요. 따라서 “통번역사를 대체할 것은 기계가 아니라 기계를 다룰 줄 아는 통번역사이다. AI를 모르는 통번역사는 도태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의 추이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처럼 이제 통번역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익히는 것을 기본 소양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의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통번역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모든 미래의 통번역 전문가들이 그런 소명의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최초의 한국인 이사로 세계 속 한국과 한국어를 자리매김

1953년 유럽에서 창설된 세계번역가연맹(FIT)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인 이사를 선임했다. 그 주인공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곽중철 교수다. 연맹의 정회원이 된 지 1년 만에 이사로 승격한 것은 연맹 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대한민국 1세대 통번역 전문가로 세계번역계의 자랑스러운 한국 대표가 된 곽중철 교수는 “임기 3년 간 한국과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 소회를 밝혔다.



학생과 제자를 위해 미세먼지 연구에 앞장서다

이태형 교수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와 나사(NASA)가 공동 실시한 한미 대기질 공동관측 프로젝트(KORUS-AQ)를 이끈 장본인이다. 200시간 비행기를 타고 항공관측을 실시해 추측해오던 미세먼지 요인을 정확히 밝혀낸 그는 이 국제연구의 큰 수확 중 하나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 것'을 꼽는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연구 실적보다 제자들의 미래를 더 중요시하는 그에게서 공동조사의 의의 그리고 그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2016년 환경부와 국립과학원, 나사(NASA)와 함께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시행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공동연구는 우리나라와 나사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히고 대기 오염 현상을 분석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원하는 상황에서 나사의 도움이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나사 측은 미국 내 대기오염 물질이 다양하지 않아 연구 범위가 한정적이었는데, 우리나라 대기의 오염물질을 조사하며 다양한 오염물질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KORUS-AQ가 성사되기까지 우리 학과 이강웅 교수님이 환경부와 나사 간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하고, 기획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연구를 성사시키기 위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관측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지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경비행기(소형비행기)를 활용해 실시했던 지상관측은 지상 위 일부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항공관측을 통해서만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넓은 지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오염물질의 수직과 수평 분포를 알 수 있기에 오염물질이 포진한 위치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지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나사의 첨단 장비를 지원 받아 항공

한미 대기질 공동관측 프로젝트(KORUS-AQ) 참여

이태형_환경학과 교수

Lee Tae Hyung

관측을 시도했고 공동연구 과정에서 항공관측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차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항공관측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요. 내년부터는 한서대가 보유한 항공기를 연구용으로 전환해 미세먼지와 관련된 항공관측과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3~4년 후 나사와 다시 한 번 국제 공동연구를 시도하려 합니다.

왜 미세먼지 수치에 국외 요인이 가장 적게 적용되는 5~6월에 연구를 진행했나요? 나사와 우리나라가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의 편의에 따라 맞출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국외 영향이 가장 낮을 때 자체적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유입면에 관해서도 근거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시기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이번 연구로 얻은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항공관측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며,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원인을 발견해 해결책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컨대, 각 공장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수치를 밝혀냈고, 북한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9%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치도 확보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이 34%, 국내요인이 52%의 미

세먼지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환경학과 학생들이 직접 나사와의 공동 측정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졸업후 함께 연구활동 제안을 받고 있는 것도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연구에 참여한 것이 교수님께는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연구 성과를 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에게는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의미가 더 큼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번 경우처럼 국제적인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현재도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를 감당해야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환경과 관련된 일은 의외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융·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문, 어문학과 학생들의 도전을 기대하며 환경학과 1회 졸업생으로서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취업의 기회와 수준 높은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HUFS



할 수 있는 일,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

지난 7월 제31대 총동문회장으로 민동석 동문이
선출됐다. 그는 내년 한국외대 총동문회 창립
60주년을 계기 삼아 총동문회의 체질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일하는 동문회, 젊은
동문회'를 만들어갈 것이라 다짐한다. 그리고
총동문회가 '할 수 있는 일'과 '꼭 해야 할 일'을
이루어가는 변화의 출발선상에는 후배를 위한
깊은 사랑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신임 총동문회장에 선출되며 '이전과는 다른 동문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동문회는 13만 동문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문들의 관심은 저
조한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총동문회
의 조직 운영이나 사업 내용에 동문들이 공감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개별 동문
들의 회비가 총동문회 재원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
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동문회의 조직 운영과
사업에 동문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체질과 시스템을 변화시켜갈 계획입니다.

체질과 시스템을 변화시켜갈 구체적 방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에 앞서, 총동문회의 존재 이유
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동문들
의 친목 도모보다는 모교와 후배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최우선해야 할 일이라 봅니다. 외교부
에서 일하는 동안 교육서비스 정부수석대표를
맡거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교육문제에 깊
이 관련한 경험을 되살려볼 때, 현재 후배들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원격교육의 확대 등 앞으로 대학교육의 지
각변동이 예상되며, 무엇보다 저 출산에 대비해
대학이 미래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제31대 신임 총동문회장

민동석(노어과 73) _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제19대 유네스코 사무총장

Min Dong Seok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
기에 지금이야 말로 총동문회가 모교와 학생들
에게 눈을 돌려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젊은 동문회, 일하는 동문회'를 만들어가겠다
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셨지요? '젊은 동문회, 일하
는 동문회'라는 표현은 제가 전임 총동문회장보
다 10년이나 젊은 만큼 사고와 일하는 방식에서
달라지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평생 공직자로서 일했기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현실 여건
과 제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재정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 풀뿌리 자립동문회로 기반을 다지고,
온라인으로 전체 시스템을 연결해 그 위에 멘토
링 사업을 세워 가동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풀뿌리 자립동문회의 목적은 재정적인 독립인가요?

근본적으로 총동문회를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동문들
이 자기가 속한 단위동문회에서만 활동했어요.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명문대학교에는 출
룡한 총동문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HUFS도
단위동문회를 총동문회와 연결하고 과단위 동
문회 회장들을 총동문회의 당연측 이사와 대의
원으로 위촉하는 등 5만 동문을 목표로 한 동
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새로운 모습의 총동

문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풀뿌리 동문
회의 기반이 구축되면 디지털과 모바일, 온라인
기반의 소통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 31
대 총동문회 출범식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개최
했으며, 동문회보도 모바일로 전환했지요. 앞으
로 온라인을 통한 막힘 없는 소통으로 동문들
의 공감과 협력을 얻고, 예산을 절감하며, 해외
동문들과도 소통을 늘려가겠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신 동문 멘토링 사업의 취지와 계획을 소
개해 주십시오. 지난 4월 HUFS와 MOU를 체결
하며 힘을 모아 동문 멘토링 사업을 적극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한국외대 역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브랜드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 취업 지원을 받
는 것이 아닌,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열
정으로 나아가게 이끌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니
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내적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향한 결단과 열정을 품도
록 하는 거죠. 따라서 외교, 언론, 기업, 법조계
등 관심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들의 성공 사례
는 물론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경험을 접하며 용
기와 자신감을 갖도록 이끌 것입니다. 내년 1월
을 기점으로 멘터 학생을 선발해 분야별 멘토들
과 매칭하고, 3월 신학기부터 멘토링을 진행하
고 특강 형식의 열린 멘토링도 도입할 예정입니
다. 동문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HUFS

모교 후배를 위해 장학금 기부

고혜수(GBT학부 16)

Ka Hye Soo

2014년 백혈병 환자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백혈병 증세로 탈모를 앓으며 괴로워하던 주인공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죠. 그 당시 저는 긴 생머리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겼는데, 불현듯 저에게는 이 머리카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건강하고, 언제든지 머리를 자르거나, 기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제 건강한 머리카락을 누군가에게 나누다면 더 가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허리까지 길렀던 머리를 귀밑 2센티까지 자르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찾아갔어요. 제 머리카락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발을 만들어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을 받으면 기부를 하던 습관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찾아갔던 걸음인데, 당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머리카락을 기부한 사례는 처음이라 당황하셨던 모습이 떠오르네요(웃음).

어린 시절부터 기부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한 것 같네요. 부모님의 영향이 큰데, 늘 '복은 남에게 베풀수록 더 크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마다 무엇이든 옮겨줘는 것보다 순환하도록 흘러 보내는 게 건강한 상태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한편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오랫동안 기부해 오셨어요. '우리 딸을 키워 준 곳'이라며, 선생님께도 학교에도 늘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요. 저에게는 교육분야에 관심이 높으셔서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우라'고 늘

격려하셨어요. 덕분에 악기나 요리, 미술 같은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다 배울 수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자라던 제주도에는 형편이 어려워 저처럼 원하는 분야를 배울 수 없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 충분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교에 가야만 하는 후배들의 이야기였죠. 그러니, 나눔을 통해 함께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래서 장학금을 기부하게 된 거예요.

2학년이 되어 장학금을 기부하며,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다 밝혔는데. 1학년 1학기 와 2학기 때 받은 '50% 장학금'을 모아 모교인 신성여고에 기부했어요. 한 명의 친구가 이 기부금으로 대학 입학금을 낼 수 있게 되지요. 우선 입학금을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학비를 해결할 수 있으니 배움의 '기회'를 나눌 수 있잖아요. 한편, 기부를 통해 얻는 기쁨도 있으니 '공부 아르바이트'로 지속적인 기부에 동참하자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장학금을 받은 것도 기부를 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웃음). 제 학비에 관해서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창업'에 관심이 많아 준비자금을 마련해보자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면, 저는 공부에 몰입하는 '공부 아르바이트'를 하자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지요. 공부의 목적이 돈이 되면 흥미를 잃

을 수 있으니,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아마도 제가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GBT학부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일 거예요. 경영 과목만 배우면 그 내용을 이상적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영어 프레젠테이션이나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작문을 익히면서 동시에 IT 분야 컴퓨터 프로그램밍을 배울 수 있으니, '이 전문성을 살려서 직접 실무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늘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현재 꿈 꾸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때에 저는 GBT학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시대에 맞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4차 산업혁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막연해 하다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강연 전문 기업'을 세우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IT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무엇이든 배경지식이 있어야 도전할 기회도 얻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을 나누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21살에 불과하니 꿈이 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을 지속하며 성장하고 싶어요. 

배운 것을 나누며, 꿈을 키워가는 청춘

고혜수 학생에게 '나눔'은 부모님께서 몸소 살아 내신 삶의 지혜를 이어가는 일이자, 꿈을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나누는 일의 즐거움과 가치를 배웠던 어린시절을 거쳐 머리카락으로, 장학금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꿈을 이뤄가는 청춘의 오늘을 들여본다.



QS Subject Focus Summit 2017,
'Language, Literature & Culture'

QS 주최 서밋 최초의 인문학 주제 학술대회 개최

HUFS,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길을 논하는 거점이 되다

HUFS가 세계적인 대학평가 기관 QS와 공동으로 QS Subject Focus Summit 2017, 'Language, Literature & Culture'를 주최하며 성대한 막을 올렸다. 지난 7월 5일(수) 세계 각처에서 모인 100여 명의 석학들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개막행사와 만찬을 즐기는 한편 인문학을 주제로 한 최초의 QS 학술대회의 새로운 변화에 환호했다. 다음 날부터 이어진 학술대회에서 이들은 '언어'와 '문학', '문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육 교류 분야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며 거점 마련

HUFS, 국내 최초 인문학 주제의 QS Summit 개최

국내 유일의 인문학 중심 융복합대학인 HUFS가 국내 최초로 인문학 주제의 QS Summit을 개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인문학을 연구하는 주요국가 연구자 100여 명은 7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개최된 2박3일의 학술대회 동안 심도 깊은 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를 나눴으며,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HUFS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대학은 주요 국가 연구자들에게 본교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으며, 국제교육 교류 분야의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하며 세계 인문학 교류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HUFS, 국내 최초로 인문학 주제의 QS Summit 2017 개최의 축배를 들다

지난 7월 5일(수), HUFS와 세계 대학평가 기관 QS가 공동 개최한 'QS Subject Focus Summit 2017,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의 막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 모였으며,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된 연회에서 참석자 등록과 동시에 VIP 티타임을 가졌다. 이날 전 행사는 오종진 국제교류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별도의 통역 없이 국제행사 공용어인 영어로 진행했다.

기조연사인 쾰른대 베른 하이네 교수와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을 필두로 대학총장 7명, 주한대사 13명 외에도 각국 대표 발표자 16명과 토론자 2명, 좌장 2명, 본교 관계자 66명과 초청교 관계자 6명 등 총 114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만찬사로 행사를 연 우리대학 관계자에 이어 QS 맨디목 CEO는 “과거 QS에서 진행한 Subject Focus Summit에서는 주로 공학이나 기술 분야를 다루었다”며 “세계지역학 연구 분야에서 유명한 HUFS는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파트너이며, 예술과 인문학 분야를 주제로 다루는 것은 매우 새로운 시도”라고 소회를 밝혔다.

개막 행사에서는 HUFS 세계 전통 민속춤 공연 동아리가 펼친 태극 전통 독무, 체코 폴카, 아프리카 트럼보 등 다양한 퍼포먼스 외에도 합합 동아리(DOVY), HUFSPhil 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해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는 일본 동경외대 히로타카 타테이시 총장의 건배 제의가 있었으며, 주최자들과 참가자 모두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통의 장을 누렸다. 이들은 언어와 문학, 문화를 주제로 토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만끽했다.



인문학과 문학, 문화를 이끌어갈 대학의 길을 논하다

전체 행사는 홍콩 링난대학교 제임스 파운더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의 기조연설 후 참석자 전원이 함께 기념촬영에 임했다.

이후 국내의 대학 총장 5인의 Track 1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와 함께 진행한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SUN)의 학술, 교육, 문화 발표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세계실크로드연맹은 동서양 문명 교류의 상징인 실크로드의 정신을 회복하며, 이에 헌신하는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해 세계 평화와 인류 문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창립한 단체이다. 이 시간을 통해 세계실크로드연맹은 실크로드 주변국들의 국가별, 지역별 인문학에 대해 논의하며 대학이 연대해 학술, 교육, 문화 교류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실크로드의 정신과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숙고하는 계기를 가졌다.

HUFS, 터키 국립가지대학교와 MOU체결

둘째 날 오찬 후에는 조선호텔 로지스에서 HUFS와 터키 국립가지대학교 간 학술 교류를 위한 MOU체결식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양교는 학술, 학생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HUFS는 국내 최고의 글로벌 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94개국, 747개의 대학·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어 Track 2와 3에서는 각각 언어, 문학과 실크로드 관련 국내외 연사의 발표를 병렬세션으로 진행하여, 트랙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각 연사의 발표 후 토론을 통해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과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방법론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가치를 지켜갈 것

행사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그간 이룬 소통이 빛을 발하는 듯 참가자 간의 친밀한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일정을 시작했다. Track 4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져 다양한 교수방식과 언어에 대한 연구 교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 QS 관계자의 스피치도 진행됐다. 이후 QS Asia CEO 멘디목이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마친 데 대한 감사와 감격을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HUFS 캠퍼스 투어와 함께 스카이라운지에서 오찬 행사를 가졌으며 HUFS 역사관 직원의 안내에 따른 역사관 투어와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발표한 HUFS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HUFS에 큰 관심을 표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나눌 것을 다짐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번 학술대회를 거점 삼아 세계 각처에서 인문학이 확장되고, 언어와 문화, 종교를 초월해 인류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Mini Interview

“HUFS, QS Summit의 새로운 변화를 이끈 이상적 파트너”

Ms. Mandy MOK(QS Asia CEO)



Q. QS Summit 행사 개최를 축하 합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HUFS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유가 있을까요.

HUFS is very famous for foreign studies. So, they are ideal partner. An also, in past we hosted many such kind of subject focus summit. They were all primarily on Engineering industrial forms. It is refreshing change to host art & humanities summit with HUFS.

HUFS는 세계 지역학 연구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Summit을 공동 주최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과거에 QS에서는 Subject Focus Summit을 여러 차례 개최했지만, 주로 공학이나 기술 분야만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HUFS(한국외대)와 예술&인문학 분야의 Subject Focus Summit을 개최한 것은 매우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This summit was able to bring together like-minded academia to discuss more in depth about Art & Humanities. 이번 Summit은 인문학 분야의 뜻을 함께하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언어, 문학, 문화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In this era of technology, where there are so many bad things happen in the world like a war, conflict, and confrontation. I think expanding into humanities is the right way to go to get the message to for human to be more tolerant, to be more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ulture, Language and religion.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과 분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인문학의 확장은 언어와 문화,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인문학의 중요성을 논하다

인간과 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문학의 역할 강조

이번 학술대회의 기조 연설자로 나선 한국창조과학회 이민화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역사정 정체성'을 주제로 약 30분 동안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인류가 스마트폰 등 IT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인류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호모에렉투스'-'호모사피엔스'의 단계를 지나 '호모모빌리언스'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호모모빌리언스란 모바일 네트워크 시대를 주도하는 신인류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현실과 가상의 호모모빌리언스 즉 신인류를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이라 밝히며, 인간을 탐구하는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그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흥과 한의 민족이라 소개하며, 한국적인 정체성을 유지한 채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역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기조 연설자인 독일 쾰른대 베른 하이네 교수는 아프리카 언어학과 언어사회학, 문법이론 및 언어 접촉 등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가나와 토고, 케냐와 탄자니아, 우간다, 나미비아 등에서 25건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광둥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이날 '언어 구조의 문화적 차원'을 주제로 연설을 준비했다. 그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언어와 어떤 구조를 갖는지에 관해 오래 전부터 논쟁해온 서양 역사를 소개하며, 비교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다양한 언어가 보편적 개념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설명했다.

올해 Hufs와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 QS가 공동 개최한 'QS Subject Focus Summit 2017, Language, Literature & Culture'의 가장 큰 의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앞두고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미래 사회 인문학의 역할을 강조한 기조 연설자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총장 연설 외 언어와 문학, 실�크로드를 주제로 펼친 연설과 토론

이날 연설에 참석한 세계적 석학은 모두 20명. 트랙 1에서는 5명의 총장 연설이, 이후 트랙 2에서 진행한 언어와 문학 관련 6명의 연설과 트랙 3의 실�크로드 관련 8명의 연설이 병렬 세션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별도 세션으로 진행한 트랙 3에는 세계 실�크로드대학연맹(SUN) 사무국이 함께 해 실�크로드 주변에 자리한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SUN)의 학술, 교육, 문화에 관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5년 경주에서 개최한 '세계 실�크로드 대학연맹 창립총회'에서의 논의 사안을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며, 실�크로드를 기반으로 동서양의 문화를 교류해갈 구체적 방안을 확인했다. Hufs는 앞으로 경북도를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 국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기대하며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을 배제한 채 유라시아와 문화로 소통하는 장을 선도해갈 것을 다짐했다. Hufs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인문학을 중심으로 기술과 과학, 나아가 사회과학까지 융, 복합하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이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주제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가 나아갈 길을 고민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Hufs는 기조연설 후 언어와 문학, 문화를 주제로 한 연사들의 발표와 릴레이 토론을 기반으로 지식의 장을 넓히며 앞으로 국제적인 교육과 학술 교류의 거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건설기획팀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배움과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다

HUFS 캠퍼스 곳곳에는 건설기획팀의 손길이 배어 있다. 학생들의 편의에 맞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한편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느라 늘 분주한 이들은 오늘도 HUFS인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바쁜 걸음에 나선다. 최근 새롭게 변모한 국제관 로비와 애경홀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건설기획팀은 건설기획과 건축을 담당하는 김재준 차장과 기계, 전기, 행정을 담당하는 이종원 대리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서울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주 업무로 하며, 건설 기술 분야를 총괄한다. 부서의 직원이 두 명인 관계로 서로 기술적으로 상호보완하며 협의하고 늘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새롭게 변모하는 변화 과정을 바라볼 때면 늘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이들은 어느덧 HUFS를 모교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됐다. 김재준 차장은 각자 맡은 업무는 다르지만 늘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며, 협력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건설기획팀은 학교의 외형적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에 더해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부서입니다. 건설이라는 분야는 사업성격상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늘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며 신중을 기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들은 HUFS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경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데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안정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 배움과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HUFS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인 것을 잊지 않는 것. 한편 그렇다고 해서 배움을 놓칠 수는 없기에 건축과 건설 관련 전문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국가 시행 정책방안을 연구하며, 건축박람회나 전기설비박람회 등을 통해 신소재나 신제품 트렌드를 익힌다. 그리고 난 후 실제 설계를 할 때에는 HUFS만의 특성을 살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학교라는 특성상 트렌드를 선도하는 건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도록 사용자의 니즈에 초점을 맞추며, 안정적인 시설을 확충하는 데서 변화를 꾀하지요. 한편 한정된 예산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재시공을 해야 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건축기금을 기반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국제관과 애경홀

이들이 이룬 변화 중 올 여름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단연 국제관이다. 주로 통번역대학원과 통번역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국제관의 리모델링 주요 내용을 보면, 1층 로비는 면적을 늘리면서 동시에 현대식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재 설계했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곳은 애경홀이다. 각종 국제회의나 행사를 진행하는 이곳은 좌석을 20석 줄이며, 좁은 무대를 1.5m 정도 넓혔다. 한편 최신 AV장비와 통·번역 장비, 무대조명과 공조 시스템, 가구 등도 전면 교체했다. 무엇보다 애경홀 내부 이용자들이 쉴 수 있도록 조성한 휴게 데크가 눈길을 끈다. 앞으로 카페 등 편의시설을 유치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국제관을 이용하는 남녀 성비 변화를 파악해 협소했던 여자 화장실과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사용하던 남자 화장실의 위치를 바꾸었다. 건물 외벽은 에어컨 배수관을 내부로 처리해 배수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으며, 새롭게 도색해 한눈에도 화사하게 보이는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재창조 되는 글로벌홀과 도서관

건설기획팀은 현재 우리은행에서 기부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6층으로 계획된 동문회관 겸 외국인학생 전용 기숙사로 사용할 글로벌홀을 짓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증축 및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학생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HUFS에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변화를 지켜보며 학생과 교수를 넘어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공간, 조금 더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배움과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며 더욱 발전해가는 HUFS를 꿈꾸며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겠습니다.” 

01_리모델링 후의 국제관 애경홀
02_애경홀의 학생휴게실
03_국제관 전경
04_국제관 로비에서 이종원 대리와 김재준 차장



2017년도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을
다녀와서

팀장 : 허행찬(디지털정보공학과 12)
팀원 : 정희택(디지털정보공학과 12),
윤예슬(디지털정보공학과 13),
이주영(중앙아시아학과 15)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정보사회를 꿈꾸다



IT is IT, 우즈베키스탄에 IT를 전하다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모집은 일년에 한번뿐이고, 팀을 꾸려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봉사단에 신청하기 위한 나의 준비는 1학기 개강과 함께 시작됐다. IT에 대한 교육봉사이므로 가장 먼저 찾았던 팀원은 IT 관련 전공자였다. 다행히 우리 학과가 IT와 관련이 있는 학과여서, 금방 팀원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현지 통역을 담당할 팀원이 절실했는데, 외국어대학교인만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를 포함하여 동기 정희택과 후배 윤예슬, 중앙아시아학과 이주영 총 4명으로 팀을 이룬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어로 lishqivozlik(열광적으로) Tarviya(교육하다)라는 의미의 팀명 'IT is IT'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서류전형부터 면접전형까지 꼼꼼하게 준비한 우리는 5월, 최종합격 소식을 들었고 본격적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7월 19일, 드디어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의 '튜란폴리텍대학교'에 도착해 현지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에 호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낯설어하지도 않았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준비해간 수업들을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IT 교육을 처음 듣는 학생들을 배려하여 안드로이드 프로그램과 SQL에 대한 내용을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현지 학생들도 집중하여 진도를 잘 따라와 주었다. 하지만, 수업이 매번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강의실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이 안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지 않아 수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답답한 티 한 번을 내지 않고 모두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해주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온다거나 수업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강의 자료를 받아가는 학생도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플을 제작하여 보여주었다. 몽글한 마음과 함께 '봉사단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은 봉사단원들을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ICT 기술 및 지식 등을 교육함으로써 국가 간 ICT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대학 'IT is IT'팀은 올 상반기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정보화를 위한 지식을 나누는 교육봉사를 진행했다.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친구들과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허행찬 팀장은 나눔으로써 얻은 소중한 추억을 우리에게 전해왔다.



지식을 나누다, 사람을 더하다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내가 얻은 것은 사람, 또 사람이었다. 우선, 외대생인 덕분에 교내에서 팀원들을 구할 수 있었고, 자주 볼 수도 있었다.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며 준비한 시간들은 나에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내가 작년부터 하고 싶었던 봉사단에 합격하게 된 것과 귀중한 시간을 경험한 것 모두, 우리 팀원들 덕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봉사의 시작과 끝에도 역시 많은 사람과의 인연이 만들어졌다.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는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친구에게 수업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성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 비슷한 나잇대여서 그런지 이야기할 수록 꼭 오래 만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다. 우리는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현지 친구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나중에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서로 아쉬운 마음에 메신저 아이디를 주고 받으며 다음을 기약하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서로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언제 만날 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먼 타지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셈이다.

처음으로 해본 해외에서의 교육봉사를 통해 나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뿌듯함을 주는 지 배우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사람'까지 얻었던 소중한 시간과 경험의 연속이었으니, 나는 나는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온 것이다. 만약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온다면 가이드를 자처할 생각이다. 우리 봉사단과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 다시 만나 추억을 공유하는 그날 이 기다려 진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그리고 HUFS

전 세계적으로 언어적, 문화적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우리 문화권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언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전파하는 도구로서 한국어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물론,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HUFS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어떻게 교육하며, 세계와 교류해야 할까. HUFS가 대안 삼은 최초의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대학원 KFL대학원을 소개하며, 앞으로 HUFS가 이끌어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해 나눈 이야기를 공유한다.



김재욱 교수
교육대학원 교수
KFL대학원 준비위원장



김경옥 대리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



주위명 학생
경영학과 16



“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한국문화를 접한 후로는 점차 관심 있는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드는 추세예요.

”



김재욱 한국어문화교육원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한류에 관심을 가진 계기로 한국을 찾은 학생들이예요. 학문적인 교육보다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쉬운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이 많지요. 그래서 대화를 중심으로 드라마나 가요 등을 통해 쉽게 이해 가능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위명 저는 중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중국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며 두 언어를 동시에 접했어요. 그리고 평소 사용하는 언어보다 아버지가 사용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에 관심이 높았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원에 입학했고, 2016년에는 HUFS 경영학과에 지원했어요. 생활 한국어를 넘어 한국어로 전공을 공부하는 데까지 꿈을 넓힌 거죠.

김재욱 주위명 학생처럼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익힌 후, 다음 단계로 HUFS에 입학해 한국어로 전공을 익히려는 외국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재욱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한국문화를 접한 후로는 점차 관심 있는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드는 추세예요. 예컨대, 한국 음식이나 K-뷰티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이를 전문분야와 연계해 공부하고자 하지요. 그런 학생들이 HUFS에 남아 한국어를 통한 한국문화 그리고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HUFS 속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명 그런 것 같아요. HUFS에서 낯선 문화권의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소통 하지요. 그런데 문화권마다 한국어를 공부하며 겪는 어려움이 다른 것 같아요. 유럽 문화권의 친구들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면, 저의 경우 중국과 한자어 해석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김재욱 저도 일본에서 한자어 해석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 전 일본 학생들에게 약혼사진을 보여주며, “제 애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에서는 ‘애인’이 불륜의 대상을 의미하더라고요. 같은 한자어라도 나라마다 해석하는 내용이 다르니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지요.

김재욱 주위명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서양권에서 온 학생들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고 이야기해요. 한국에서는 학생이 지나가면 “어디 가요?”라고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서양권 학생들은 “선생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어문화교육원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끼도록 매년 한글날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말하기나 글짓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매해 참여 인원이 늘고 있어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체감하고 있지요.



앞으로 한국어를 활용한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을 익히는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능숙함을
길러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위명 저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 '말하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껴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표현하려고 애썼지만, 점차 위축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점점 더 말을 안 하게 됐죠.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잘 하지 못하더라도 격려해 주셨으면 해요.

김재욱 학생을 격려하는 것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그런데 HUFS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워낙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보니, 교육자 입장에서 방법적인 면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해요. 문화권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바도 다르니까요. 일본이나 중국 학생들을 위해 한자를 사용하며 가르치면 차이를 이해하며 훨씬 수월하게 한국어를 익히겠지만 서양권 학생들에게는 그보다 힘든 방식이 없을 터이고, 서양권 학생들은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매우 흥미를 느끼는데 반해 동양권 학생들은 '공부를 덜 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그 대표적 예이죠.

김경욱 그래서 학생과 교사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며 각자의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주위명 학생처럼 말하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위해 수업 외적으로 외부 공연을 보거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말하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재욱 앞으로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이네요. 주위명 학생이 한국어로 경영학을 배우는 것처럼 요즘 HUFS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하기에 더 높은 차원 혹은 다양한 차원의 교육을 필요로 해요. 따라서 한국어 교육의 방식도 목적에 맞게 다양화되어야 하지요. 일반화 교육이 아닌 특수목적, 학업목적, 취업목적 등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주위명 경영학을 배우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를 능숙하게 사용해야 하지요. 앞으로 한국어를 활용한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을 익히는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능숙함을 길러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경욱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을 강화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것.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를 교육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이야기인 것 같네요. 우리대학의 KFL대학원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지요?



요즘은 해외에서 일하는 동문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돌아갔을 때,
외대동문들에게 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김재욱 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KFL대학원은 한국어 교육학과, 한국문화·문학학과, 한국어번역학과를 두어 외국에서 한국어 혹은 한국문화나 문학을 가르치는 외국인에게 전문 학위를 수여하거나 한류 드라마나 영화를 번역하길 원하는 외국인에게 깊이 있는 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전달하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주위명 저도 한국어를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귀 기울일 만한 정보이네요.

김재욱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 후 다시 본국에 돌아가 한국어 전공을 살려 일할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 기회를 넓히기 위해 KFL대학원에서 전문적인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HUFS의 대표적인 강점 중 하나인 글로벌 네트워크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욱 요즘은 해외에서 일하는 동문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돌아갔을 때, 외대동문들에게 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보다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서로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지요.

주위명 저도 중국에 돌아가면 외대인으로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한국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요.

김재욱 그렇지요.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이를 라틴어 어원으로 살펴보면 '밖으로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교육이란 한 사람의 장점을 잘 키워내 밖으로 드러나게 이끄는 것이죠. HUFS의 강점은 외국어 특성화 교육이니까 한국어를 통해 개개인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돕고, 세계 속의 외대동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경욱 저도 그 관점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동문 모두가 HUFS의 자산으로 성장하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인재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한 리더로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혼돈의 시대에 빛을 발하는 덴마크의

“hygge”

왜 지금 “Hygge”인가?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미 10년 전에 침체의 터널에 들어선 세계경기는 이제야 그 끝이 아련히 보이는 듯 하고, 영국의 Brexit는 그들 스스로는 물론 유럽 대륙을 뒤흔들고 있으며,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국 대선 이후의 Trumpism은 세계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를 만들었으나 아직 믿음을 주기에는 이른 듯 하며, 시공을 초월하는 북한의 불장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그 편치 않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편안하고 아늑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하게 된다. 최근 수년간 “hygge”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되는 덴마크인들의 삶의 방식이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마도 편치 않은 지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세계인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인류의 발전은 혼돈으로부터 정돈으로, 불안에서 편안으로, 각박함으로부터 여유로움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Hygge”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삶의 방식 중에 도대체 “hygge lifestyle”이란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덴마크어 “hygge”를 이해함과 동시에 덴마크, 더 나아가 스칸디나비아 사회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Oxford 영어사전은 “hygge”를 ‘흡족함과 참다운 삶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아늑함과 편안한 유쾌함의 질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Collins 영어사전은 ‘정서적 편안함을 촉진시키는 아늑하고 푸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생활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Hygge”는 그 정의에서 나타나듯 상당히 모호하면서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작용을 동시에 나타내는 개념이며, 세계 어느 언어로도 한 단어로 옮길 수 없는 독특한 단어이다. 가을 오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단풍든 정원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의 느낌, 또는 크리스마스에 모처럼만에 온가족이 오순도순 모여앉아 웃음꽃을 피울 때의 느낌, 그런 느낌, 그런 상태, 그런 분위기를 바로 “hygg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ygge”의 어원은 ‘위안하다’, ‘위로하다’를 의미하는 1500년대 노르웨이어 “hugga”로 거슬러 올라가며,

영어의 “hug”와도 연결된다고 알려져 있다. “Hygge”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휴거’, ‘휴거’, ‘후거’ 등으로 발음된다. 유럽 북단에 위치해 있는 덴마크인들의 생활방식을 압축하고 있는 “hygge”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50년대부터 있어왔으나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화, 극우포퓰리즘의 득세, 국제정세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점철된 불안과 혼돈의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하였으며, 2016년 1월 코펜하겐행 북연구소의 메이크 비킹(Meik Wiking)의 저서 “The Littlebook of Hygge”의 출간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었으며, 이를 전후하여 20여 권 이상의 “hygge” 관련 저서가 출판되었다. 영국 일간지 Guardian은 이러한 현상을 “hygge” 출판 열풍이라 하였으며, “hygge”는 드디어 2016년 Oxford 사전과 Collins 사전의 올해의 신조어 최종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Hygge”의 배경

그렇다면 덴마크, 나아가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어찌하여 아늑하고 편안하며,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이며, 임신과 출산을 전후하여 1년 이상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고, 7월 한 달을 유급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든든히 버텨주고 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이 더 큰 행복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소소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였고 그런 자잘한 행복이 바로 “hygge”인 것이다. “Hygge”에는 맛있는 빵을 구어 옆집 사람들과 수다 떨며 느끼는 함께 하는 “hygge”가 있는가 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을 즐기며 느끼는 혼자만의 “hygge”도 있다.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정치인의 노력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1900년대를 전후한 50여 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스칸디나비아를 떠난 사람들이 당시 인구의 20%에 달했을 정도로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던 나라들을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세계 최고의 복지선진국으로 성장시켰다. 그 결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5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양성 평등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정치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노력과 정치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높낮이가 없다는 인식으로 승화되었고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내가 어려울 때는 그러한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이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우리도 “hygge”를?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하며 끊임없이 복핵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우리는 아직 덴마크의 “hygge”처럼 일상을 즐거움으로 삼을 만큼 안락하지도 여유롭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에는 차례가 끝난 뒤 다과상을 가운데 두고 모처럼만에 온가족이 모여앉아 오순도순 웃음꽃을 피우면서 “hygge”해 보자. “Hygge”는 도구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박노호 교수
스칸디나비아어과

지식출판원 새로 나온 책

01

몽골어 1(개정판)

한국과 몽골은 1990년에 정식 수교를 맺은 이래로, 다방면에서 급속하게 발전했고 민간차원에서도 많은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학을 기본으로 몽골 현지 제반 분야의 전문 지식을 겸비한 몽골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도서는 이에 발맞춰 지난 2011년에 출간한 책을 새로이 개정한 도서로, 몽골인의 목소리를 녹음해 음원파일을 수록하고 해설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특징이다.

Otgontsetseg Damdinsuren / 2017 / 288면 / 46배판 / 22,000원

02

한·쿠바 기후환경협력

이 책은 한국이 쿠바와의 관계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리드할 수 있도록 쿠바와의 미래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다. ‘집중과 선택’ 논리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래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급변하는 쿠바 정세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정치외교, 경제와 무역, 환경과 기후변화, 법과 제도,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통섭 되어 있다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정경원 외 / 2017 / 216면 / 신국판 / 17,000원

03

신화와 콘텐츠

이 책은 3개의 장으로 나뉘어 신화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었다. 제1부 신화와 상징에서는 먼저 신화에 대한 총론을 기술하고 에리히 노이만과 질베르 뒤랑 그리고 폴 리코르의 신화론을 다룬다. 이어 제2부 신화와 해석에서는 집필자들의 신화에 현대적 해석이 중점적으로 담겨있다. 제3부 대중 문화콘텐츠와 신화에서는 집필자들이 각자 관심 있는 장르콘텐츠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신화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시도했다.

박희영 외 / 2017 / 464면 / 크라운판 /20,000원

04

공간의 시학과 무욕의 상상력

이 책은 독자를 꿈꾸게 하는 매력을 지닌 철학자 바슐라르에 대한 것이다. 총 9장으로 구성됐으며, 초반부에는 바슐라르를 소개하며 그가 중시했던 ‘일상적인 것’의 가치와 그가 의도하는 상상력의 본질을 되새기며 다시금 해석해 봤다. 후반부에는 그의 시론, 저서 등을 살펴보고 분석한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마지막에는 바슐라르의 4원소론 전체를 조망하면서 상상력이 현대인의 삶을 치유하는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모색해 봤다.

박치환, 김윤재 / 2017 / 424면 /신국판 / 20,000원

05

햄릿(제1사절판본)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는 세 가지 판본이 있다. 1603년에 출판된 『햄릿 제1사절판』과 1604년에 출판된 『햄릿 제2사절판』, 그리고 셰익스피어 사후인 1623년 36편의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모은 첫 전집본인 『햄릿 제1이절판』, 국내에 소개된 대부분의 번역본이 ‘제1이절판’과 ‘제2사절판’을 다뤘기에 다른 판본들에 비해 다들 어지지 않은 원본 그대로를 다룬 ‘햄릿 제1사절판본’은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월리엄 셰익스피어(박우수 옮김) / 2017 / 200면 / 국판 / 14,000원



06

07

08

06

기술사업화

이 책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현장 실무자들은 물론, 앞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인력에게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사업화에 대한 개요로 시작되는 이 책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또한, 이론적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각 세부 주제별 실습문제와 종합적인 사례문제와 함께 해결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손수현, 이성룡 / 2017 / 336면 / 크라운판 / 20,000원

07

경계횡단으로서의 번역

이 책에서는 번역이 텍스트 연구나 분석, 문화 연구나 분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방법임을 상징하고, 모든 가치가 원전으로만 귀속되는 자기 폐쇄적인 환원주의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기계이자 유의미한 분석 도구임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번역이 문화적, 학문적 제도와 규범에 어떻게 대응하며, 시기마다 그것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안미현 / 2017 / 408면 / 신국판 / 20,000원

08

세미오시스의 매체성과 물질성

물질성은 매체성의 근본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로서 기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호매체의 물질성 개념은 기호, 기호작용, 인지, 소통은 과연 그것의 물질적 출현형식에서 분리시켜 관찰할 수 있는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그동안 기술매체에 관한 논의에 밀려 별로 주목하지 못한 기호와 매체의 관계, 매체적 매개, 기호작용 등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세미오시스연구센터 / 2017 / 368면 / 신국판 / 18,000원

09

매체와 장르

근본적인 차원에서 언어 현상에 주목해 볼 때 장르는 문학과 글(텍스트)에만 국한되는 범주가 아니다.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행위 전반에도 적용되는 행위 장르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특정한 유형의 행위로 인식,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된다. 본 총서에서는 매체가 어떻게 장르의 가능성을 열어 주거나 제약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해 미디어와 장르의 상호작용을 고찰해 보고 있다.

세미오시스연구센터 / 2017 / 304면 / 신국판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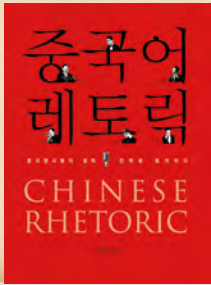
01

02

03

04

05



09

10

11

12

10

FLEX 스페인어 4

이 책은 기존의 FLEX 스페인어 시리즈 문제집에서 새롭게 추가, 변경된 내용을 보완해 만들었다. 이번 책의 특징은 원어민과 함께 각 문항에 대한 검증에 강화하여 문제들을 수준에 따라 등급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FLEX를 겨냥한 수험생들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스페인어 실력을 스스로 감지하도록 하여 학습에 대해 흥미를 높이도록 하고, 아울러 스페인어 습득에 자신감을 갖고 더 높은 수준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만희, 유은정 / 2017 / 280면 / 46배판 / 16,000원

11

중국어 레토릭

레토릭(Rhetoric)은 이제는 미사여구의 걸치레가 아니다. 우리 시대 필수불가결 삶의 방법론이자 매일 펼쳐지는 진정한 일상무늬다. 무엇이든 지 표현하고 설득하며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 그 자체가 레토릭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양 고전 레토릭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진핑과 마윈의 중국어 연설문을 분석해 볼 수 있으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명사들의 로고스(Logos)와 파토스(Pathos)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민구 / 2017 / 288면 / 신국판 /18,000원

12

중국어 콘텐츠 큐레이팅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중국어 교육에 최신 데이터 디자인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총체적인 모듈을 제시했다. 중국어 콘텐츠 제작 및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모듈들을 다룬 내용을 장별로 담고 있으며 OS, 텍스트, 사운드, 영상, 자막, 상호작용, ebook, 스마트 디바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 큐레이팅을 다루고 있다.

박정원 / 2017 / 552면 / 크라운판 / 26,000원

HUFS

News

- 34 HUFS Topic
- 38 HUFS Today
- 44 HUFS 학술 소식
- 46 HUFS 교수 소식
- 47 사이버한국외대 소식
- 48 HUFS 사업지원처 소식

- 51 동문 소식
- 52 주요동문 인사
- 53 발전기금 소식
- 54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초청 특강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이 HUFS 국제지역대학원(원장 박상미) 초청으로 9월 19일(화) HUFS 서울캠퍼스에서 'UN과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반 전 총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험담을 토대로 리더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리더는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특강에는 한국외대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강 종료 후 반 전 총장은 학생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행사는 마무리 됐다.



제4차 미주동문연합회 과테말라 총회 개최

제4차 HUFS 미주동문연합회(회장 황한주, 스페인어83) 정기총회가 7월 14일(금)부터 7월 16일(일)까지 개최됐다. 이날에는 우리 대학 김현택 대외부총장, 이은구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고, 이덕선 해외동문연합회 회장 등 뉴욕, LA, 워싱턴DC, 애틀란타, 시애틀 등 북미는 물론 멕시코,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칠레, 엘 살바도르 등 남미에 거주하는 총 96명의 동문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과테말라 안티구아에서 진행됐으며, 첫째 날에는 리셉션과 친목도모를 위한 골프대회, 시내관광이, 둘째 날에는 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제4차 정기총회는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동문 간 친목을 다지면서 외대인으로의 자긍심과 애교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세계로 뻗어가고 발전해가는 외대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모교에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년 마다 개최되는 미주동문연합회 총회는 2011년 뉴욕에 이어 2013년 LA, 2015년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북미, 중미, 남미를 포함하는 전 미주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다. 한편, 5차 미주동문연합회 행사는 2019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 개막식 개최

제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가 7월 23일(일) HUFS 오바마홀에서 개막식 행사를 가졌다. 본 행사에는 전 세계 62개 국가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하여 에스페란토 기초수업, 주제발표 등의 학술행사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다. 이번 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는 1994년 제79차 세계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로 한국의 밤(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콘서트, 연극, 국제 예술의 밤, 연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Universala Kongreso de Esperanto, 줄여서 UK(우코)라고 칭한다)는 세계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모이는 에스페란토 연중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다. 매년 7월 해당 년도 개최국에서 열리며 에스페란토 세계협회(UEA)와 개최국 협회와 에스페란티스토들이 협력하여 준비한다. 행사는 약 일주일간 진행되며 기초수업, 주제발표, 심포지엄 등 에스페란토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참가자들을 위한 관광프로그램도 특정 날짜에 진행된다. 친교의 밤 등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자리도 마련되며 개최국의 민속행사도 관람할 수 있다.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개최

6월 13일(화)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에게 한국외대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권경애 대학원교학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수여식 행사는 국민의례, 한성철 대학원장의 추천사, 학위기 수여 및 강병중 회장의 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병중 회장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강병중 회장은 79세로 진주출생으로 마산고와 동아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세계적 타이어생산업체인 넥센타이어와 부산경남방송 KNN 회장으로 있다.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김인경·박성현 선수, 세계 골프대회 우승

HUFS에 재학 중인 김인경 선수(국제스포츠레저학부 12)가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킹스반스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박성현 선수(국제스포츠레저학부 12)도 미국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의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선두에 3타 처진 4위로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한 박성현 선수는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하며 생애 첫 LPGA 우승을 차지했다.



글로벌캠퍼스 2017년도 하계 HUFS 글로벌봉사단 파견

글로벌캠퍼스 2017년도 하계 HUFS 글로벌봉사단은 8월 5일(토)부터 13일(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빈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HUFS 글로벌봉사단 20명은 선발 및 자체 교육, 합숙 등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파견됐다. 이후 7박 9일 동안 현지의 히에우탄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미술, 과학, 음악, 체육 등의 다양한 교육, 문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17년 하계 해외교류지원프로그램 파견학생 발대식 개최

2017년 하계 해외교류지원프로그램 파견학생 발대식이 6월 17일(토), 미네르바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HUFS CORE사업단이 주관하는 해당 프로그램에는 총 148명의 학생이 선발됐고, 이날 파견학생들은 한 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프로그램 수행을 다짐했다. 윤석만 사업단장은 "우리 대학의 해외교류지원프로그램이 전체 CORE사업 글로벌 지역학 모델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2017 하계 광 단기 어학연수 진행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제51대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장 백유진)는 8월 14일(월)부터 26일(토)까지 2주간 서울캠퍼스 재학생 20명과 함께 2주간 광 대학 하계 단기어학연수를 진행하였다. 광 대학(University of Guam)에서 진행된 이번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이외에도 광의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Activity 수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광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20기 KOTRA 해외무역관 현장실습 발대식 진행

제20기 KOTRA 해외무역관 인턴 발대식이 7월 11일(화)에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76명 인턴 학생들은 발대식 이후 전 세계 42개국의 무역관으로 파견되어 6개월간 통·번역 및 무역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HUFS는 2008년 KOTRA 해외무역관으로 재학생을 파견한 이래, 우수한 성과와 현지 무역관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파견하는 학생들의 수가 매학기 증가하고 있다.



제41차 HUFS 모의유엔총회 행사 개최

제41차 HUFS 모의유엔총회(HIMUN)가 8월 6일(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본 총회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대두에 따른 신 국제질서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외대 재학생 및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11명이 한국, 중국, 멕시코, 인도, 영국, 미국, 독일 등의 대표로 참여하여 각국의 언어로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발언했다.



이사벨 세인트 말로 파나마 부통령 초청 특강 개최

8월 29일(화) 국제회의실에서 이사벨 세인트 말로 파나마 부통령 겸 외무부장관의 초청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사벨 세인트 말로 부통령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리적 특성, 물류, 서비스업 등을 기반으로 성장한 파나마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번 특강에는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및 LD(Language & Diplomacy)학부 재학생 포함 150여명이 참석했다.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테레사 현 교수 초빙 특강 진행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는 6월 12일(월)에 테레사 현(Theresa Hyun)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현 교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서구 아동문학이 북한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다소 덜 조명되었던 분야에 대해 석·박사 과정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연구동기를 부여하는 귀중한 시간을 선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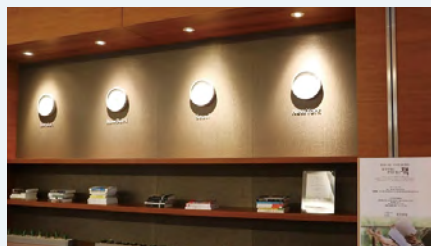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성문화상담실, ‘열린 상담실’ 진행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성문화상담실은 5월 17일(수)에 ‘열린상담실’ 상담서비스를 진행했다. 글로벌캠퍼스 축제인 대동제 기간 중 학생회관 앞에 열린 상담실 부스를 설치한 뒤, 간이 심리검사와 해석지를 나눠주며 교내 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했다. 학생상담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출판원, 독서 권장 캠페인 참여

지식출판원(원장 가정준)이 롤링힐스 호텔과 KBS 1TV 〈서가식당〉이 함께 하는 독서 권장 캠페인에 참여 한다. ‘휴가지에선 휴대폰 말고 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호텔을 방문한 고객들이 휴대폰을 잠시 끄고, 독서를 즐기며 마음의 양식과 여유를 채우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호텔 로비라운지에는 지식출판원에서 출판한 도서 20여 권과 〈서가식당〉의 추천도서 30여 권이 비치된다.



지식출판원, 서울국제도서전 성황리에 개최

지식출판원이 6월 14일(수)부터 18일(일)까지 ‘2017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이 도서전은 국내 최대 도서전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날 지식출판원이 속한 한국대학출판협회는 20개 회원교의 출간도서 1,000여 종과 일본대학출판부협회 20개 회원교의 도서 60여 종을 전시 주관했다.



지식출판원 『괴테사전』, 2017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지식출판원에서 출간한 『괴테사전』이 2017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간된 국내 초판 학술도서 4,013종의 신청 도서 중 10개 분야 320종을 학술부문 세종도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괴테사전』은 괴테 문학과 독일 문학에 대한 1차 정보 제공과 함께 독자를 더욱 깊이 있는 자료로 유도하려는 취지를 인정받아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지식출판원, 다국어 콘텐츠 개발 서비스 MOU 체결

지식출판원은 8월 2일(수), 지식출판원장실에서 ㈜다이아믹스와 다국어 콘텐츠 개발 서비스 MOU 협약식을 진행했다. 1년 동안 운영될 해당 업무제휴 협약은 다국어 콘텐츠 개발, 다국어 번역 지원 사업, 다국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타 상호 교류협력 가능 분야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동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교육센터, SK청년비상프로그램 글로벌 네트워킹 연수 실시
창업교육센터에서는 7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중국 북경에 ‘글로벌 네트워킹 연수’를 다녀왔다. SK청년비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1기 글로벌 네트워킹 연수는 재학생 8명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중국의 창업열풍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며 창업마인드 함양 및 창업아이디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진로취업지원센터, ‘취업희망나무 소망걸기’ 행사 개최

글로벌캠퍼스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는 2학기 개강을 맞아 9월 5일(화)부터 9월 7일(목)까지 3일간 백년관 1층 로비에서 ‘취업희망나무 소망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취업희망나무 소망걸기 이벤트를 통해 희망프로그램의 수요 조사와 하반기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진행되었다.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 ‘2017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 환경부 장관상 수상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이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최하는 ‘2017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에서 환경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글로벌캠퍼스는 올해 포함 건축 리모델링 관련 3년 연속 수상하는 기업을 토했다. 어문학관이 2015년 한국리모델링협회 주최 ‘2015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에서 국토부 장관상(대상)을, 인문경상관이 2016년에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녹색건축 한마당’ 국토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 개통식 열려

정보지원처 IT개발팀은 8월 21일(월), 정보시스템 고도화 개통식을 본관 446호에서 개최했다. 이번 진행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내용으로는 신규 DB서버 도입, DBMS 업그레이드, DB보안 강화, 다국어전환, 대기순번시스템(넷퍼널) 도입 등이다. 이번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HUFS는 향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보 및 정보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국제지역대학원 GRN사업팀 정책워크숍 개최

국제지역대학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 사업팀이 지난 9월 7일(목) 본관 13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우리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및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북한 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HUFS 가을 연합 문화제 성황리 개최

제 51대 HUFS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9월 13(수)~15일(금) ‘2017 가을 연합 문화제’가 성황리 개최되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 속에 프로듀스 HUFS 가요제, 푸드트럭, HUFS인들의 버스킹 실력을 볼수 있는 Mac Stage 뿐만 아니라, 좀비런, 미니바이킹,포토존, E-sports 등 이 진행되었다. 이번 문화제에는 학업에 지친 재학생들에게 활력소가 되어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할 에너지를 제공하였다.



글로벌캠퍼스, 한글교사 대상 한국어 역량강화교육 진행

48개국 한글교사 대상 한국어 역량강화교육이 7월 17일(월)부터 24일(월)까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글학교가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이날은 각국에서 초청된 한글교사 132명이 한국어 교수법 및 한국 역사·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역량 제고하는 자리였다.



HUFS-YTN,

중·고등 영어토론대회 개최

HUFS와 YTN이 공동 주최하는 중·고등 영어토론 대회가 인문과학관에서 각각 열렸다. 7월 26일(수)과 27일(목)에 열린 제9회 고등학생 영어토론대회에서는 전국 고등학생 27개 팀 81명과 중국, 일본에서 각 2팀이 참가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후 8월 2일(수)과 3일(목)에 열린 제8회 중학생 영어토론대회에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115개 팀이 참여해 고등학생 못지않게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HUFS-동대문구,

2017 여름방학 영어체험교실 수료식 개최

HUFS와 동대문구청이 함께하는 2017 여름방학 영어체험교실 1기 수료식이 8월 4일(금),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7월 24일(월)부터 2주간 함께 수강한 64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어체험교실은 원어민과 함께 기본적인 영단어부터 팝송, 스포츠, 미술 등을 영어로 수업하면서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동대문 구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7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2017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18일(금),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서울캠퍼스 오바마홀과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진행된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1,634명(학사 1,271명, 석사 321명, 박사 4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교무위원들은 양 캠퍼스에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2017-2학기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2017학년도 제2학기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8월 22일(화),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김종철 이사장은 2017학년도 제2학기 신규임용 교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앞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대학 발전에 더욱더 매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조국현 서울캠퍼스 교무처장과 홍석우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이 배석하였다.



2017-2학기 외대사랑순찰대 및 외대지킴이 오리엔테이션 개최

8월 25일(월)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109호(윤강로 회의실)에서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대사랑순찰대'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24명의 '외대사랑순찰대'는 3명이 1개조를 구성해 총 8개 조가 하루 4시간(19:00~23:00)씩 야간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서울캠퍼스 안전을 위해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또한 학교축제 등 특별상황 발생 시에는 심야에도 운영한다.



육군학생군사학교 방문 및 학군후보생 격려

우리대학 관계자는 8월 17일(목)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했다. 하계입영훈련 중인 우리 학교 학군후보생들에게 하계훈련기간이 끝날 때까지 바뀌어진 훈련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달라 격려하였으며, 학교장 및 군 간부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종덕 서울캠퍼스 부총장, 신정아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119 ROTC 동문회 회장단이 함께 했다.

2016~2017학년도 단체협약 및 2016학년도 임금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직원노동조합은 6월 14일(수), 대학본부 이덕선 회의실에서 2016~2017학년도 단체협약 및 2016학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이계원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을 비롯하여 학교 및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1 포르투갈어과 권기수	9 그리스·불가리아학과 김혜진	17 네덜란드어과 Roxanne But	25 경영학부 Shrestha Dipendra Lal
2 인도어과 고태진	10 수학과 최일규	18 스칸디나비아어과 Anders Mattias Burell	26 프랑스어교육과 Arnaud Duval
3 국제통상학과 남수진	11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박동철	19 태국어과 Runchanee Srisaman	27 외국어교육센터(서울) Stephanie Ann Ptak
4 경영학부 이경윤	12 법학전문대학원 장보은	20 베트남어과 Phan Tran Cong	28 한노과 Kim Nadejda
5 경영학부 김용재	13 영어학과 Robert Otto Davis	21 인도어 Arti Singh	29 한국학과 Jee Eun Regina Song
6 Language & Trade학부 임태훈	14 스페인어과 Maria Teresa Martinez Garcia	22 몽골어과 Dorj Ulziibat	30 영어교육콘텐츠개발학과 Merrilee Brinegar
7 외국어교육센터(서울) 조민영	15 노어과 Iaroslava Pakulova	23 중국언어문화학부 Wang Dong Ming	
8 헝가리어과 유진일	16 포르투갈어과 Maria Luiza Goncalves Aragao da Cunha Lima	24 중국언어문화학부 Chien Chin-Sung	

장모네 EU센터,

제11회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 진행

제11회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가 6월 2일(금)에서 3일(토)까지 고려대 인촌 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유럽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13개 유럽 관련 학술단체가 참여해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함께 진행된 유럽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으로는 김창범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그리고 박정훈 SBS사장이 선정됐다.



러시아연구소,

한국노어노문학회와 국내학술대회 공동 개최

러시아연구소는 6월 10일(토), 미네르바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노어노 문학회와 국내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노어노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러시아연구소 소장인 강덕수 교수의 기조 연설로 문을 열었다. 이후, 국내 전문가 5명이 참가한 라운드테이블과 어학, 문학, 문화, 러시아어 교육 세션 등 23개 주제에 대해 총 23명의 발표가 이어졌다.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

6개 학과 연합 학술대회 실시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은 6개 학과(영미문학·문화학과, EICC학과, 중국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문화학부, 철학과, 사학과)의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합 학술대회의 주제는 '소통을 위한 인문학 탐구'였으며, 대부분의 발표가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 위주로 준비됐다. 발표에는 영어번역학과(학부 EICC)의 최지은 학생과 이상빈 교수, 영미문학문화학과 심재홍 학생과 정은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언어연구소,

2017년 해외저명인사 초청특강 진행

언어연구소(소장 김백기,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는 7월 4일(화), 14(금) 이틀에 걸쳐 해외저명인사 초청특강을 진행했다. 4일에는 쾰른대학교와 광동외국어대학교 소속의 Bernd Heine 교수가 'Cooptation as a Discourse Strategy in English'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14일에는 콜로라도 대학 언어학과의 Zygmunt Frajzyngier 교수가 'Typology of functional domains: Implications from African data'를 주제로 발표했다.



러시아연구소,

제168차 콜로키움 개최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7월 4일(화), 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회의실에서 제168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인문한국 프로젝트(아젠다: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김효선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이 '한·러 북극 에너지 협력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HUFS-도쿄대학,

학술교류심포지엄 및 일본작가초청강연·대화 열려

HUFS와 도쿄대학은 6월 3일(토)에 본관 109호실에서 학술교류심포지엄 및 일본작가초청강연·대화를 열었다. '일본근현대문학의 제상(諸相)-비교문학 비교문화의 시점에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도쿄대학 교수 3명과 우리 대학 교수 3명이 발표했다. 또한, 제15회 '일본미스테리문학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마에카와 유타카 씨의 초청강연과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됐다.



로컬리티 사업단,

'2017 로컬리티 썸머스쿨' 성공리에 마쳐

로컬리티 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웅운, 프랑스학과 교수)은 7월 3일(월), '2017 로컬리티 썸머스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글로벌캠퍼스에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로컬리티 썸머스쿨'은 로컬리티 사업단의 대표 인바운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회차를 맞아, 글로벌 신흥거점 지역 내 총 7개국 11명의 방한 학생이 초청됐다.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2017년 제주 워크숍 진행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소장 정경원)는 7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제주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7년 한·중남미 환경협력 모델 창출을 위한 연구리뷰'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해당 연구에 참여 중인 공동연구원 연구교수, 연구보조원이 참석해 센터의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 동안 연구성과를 세밀히 리뷰하고 향후 2018년 연구방향과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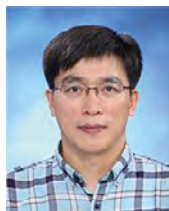
박재우 교수,
제8차 국제루션연구회 학술포럼 성공리에 개최
박재우 교수(중국어언어문화학부)는 7월 3일(월), 4일(화)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에서 제8차 국제루션연구회 학술포럼: 비엔나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세계 각지의 루션 연구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의 전이—루션과 유럽문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한편, 박 교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국제루션연구회는 2011년 창립 이래로 지난 6년간 총 8차례 전 세계를 누비며 성공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며 중국 및 세계 한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정오 교수,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박정오 교수(루마니아어과)는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7년 판에 등재된다. 박 교수는 앞서 A&HCI급 논문 1편을 포함한 총 40편 이상의 논문과 10권의 전문서적을 출판한 바 있다. 이처럼 박 교수는 그동안 지속해 온 루마니아 문학 및 지역학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와 같은 성과를 올렸다.



김신 교수,
한국논리학회 회장 선출
김신 교수(LD학부)가 7월 10일(월)부터 14일 동안 대전 한국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한국논리학회/Asian Logic Conference 연계 여름 학술대회에서 한국논리학회장으로 선출됐다. 논리학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76년 창립된 한국논리학회는 현재까지 2세대 혹은 3세대의 논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매년 4회 이상의 학술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박문수 박사,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박문수 박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가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7~2018년 판에 등재된다. 이는 박 박사가 사업단에서 수행해 온 수도권 관측망 구축 및 도시 기상 분야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박 박사는 사업단 도시기상관측기술개발실의 실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수도권 도시기상 관측망(UMS-Seoul)을 설계 및 구축하는 등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은귀 교수,
대산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지원대상 선정
정은귀 교수(영미문학문화학과)는 2016년 대산문학상 수상자인 이장욱의 시집 『영원이 아니라서 가능한』 영역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한국문학번역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정 교수는 2005년 이성복의 시집 『아 입이 없는 것들』이 대산문화재단의 번역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영역 시집 『Ah, Mouthless Things』를 미국의 시 전문 출판사 Green Integer에서 출판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수상이다.



김진우 교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법학연구 분야 논문 피인용 횟수 2위 차지
김진우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법학 분야에서 두번째로 많은 논문 인용된 학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김진우 교수의 학술 논문이 학자들 및 법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재원 교수,
제3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양화분야 입선 수상
이재원 교수(독일어통번역학과, 하안공간 지도교수)가 9월 6일(수) 발표된 제 36회 대한민국미술대전(주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주관: 대한민국미술대전 비구상·구상부문 운영위원회) 구상부 양화분야에 입선 수상했다. 이재원 교수는 올해 제1회 교직원미술대전에 입상하였고 2017 세계미술교육학회 초대전에서도 전시하였다.



신정환 교수,
『돈키호테 성찰』 번역 출간
신정환 교수(스페인어통번역학과)가 『돈키호테 성찰』(을유문화사)를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돈키호테』를 해설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돈키호테주의(세르반테스주의)를 다룬다.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 소설 『돈키호테』를 비평가의 시선으로 음미하면서 스페인적 영웅 정신을 되찾고자 한 것이다.



제5대 김종렬 총장 취임식 개최
9월 1일(금)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제5대 김종렬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종렬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에 사이버한국외대대학교가 글로벌 리더 대학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며 “사이버한국외대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종렬 총장은 “고령화 현상과 급변하는 지식환경 속에서 우리 대학은 사이버교육공간을 뛰어넘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리드하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 교수가 마음껏 연구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온·오프라인 대학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및
2017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사이버한국외대와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은 8월 26일(토)에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390명, 석사 25명 등 총 415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 이후, 같은 장소에서 2017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학사와 콘텐츠, 대학 생활, 총학생회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일본 문부과학성 장학생 배출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김가희 학생이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어·일본문화 연수생(일본 국비 유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일본어학부는 2013년, 2014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비 유학생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이버한국외대,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상호 협력 약속
사이버한국외대는 8월 14일(월),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응웬 부 두 베트남 대사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은 상호 우의를 돈독히 다지며 앞으로 더 미래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응웬 부 두 베트남 대사는 “재한 베트남인이 한국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이버한국외대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
제3차 콜로키움 진행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는 6월 17일(토), 사이버관 소강당에서 제3차 콜로키움 및 입시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이유진 강사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발음문제와 학습방안’을 주제로 실전 발음 연습을 진행했으며, 이어 이희경 강사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영어 강의를 진행했다.

사이버한국외대 금융회계학부,
‘빅데이터’ 분석 트랙 신설
사이버한국외대 금융회계학부는 2017~2학기부터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을 신설 및 운영한다. 본 트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역량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분석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수업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빅데이터 분석 도구의 대표 주자이자 오픈소스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에 적합한 R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다.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졸업생 2명 겸임교수 임용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이규영, 이진영 동문이 졸업과 동시에 겸임교수로 임용됐다.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폭넓은 실천 경험과 TESOL대학원에서 쌓은 연구 및 교육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두 동문 모두 글로벌사이버대 실용영어학과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사업지원처

동대문영어캠프 운영



사업지원팀은 7월 24일(월)부터 8월 19일(토)까지 동대문 영어캠프 교실을 진행했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본 캠프는 1회 당 2주에 걸쳐 진행됐고, 사전 test를 통해 수준별 교실로 운영됐다. 2010년부터 동대문구와 협력하여 관내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어캠프 교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꾸준히 많은 참여문의를 받고 있다.

문의 02-2173-3529 홈페이지 http://ihufsdmm.ihufs.co.kr

자유학기제 진행

사업지원팀은 교육청, 제주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도서벽지 및 제주도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고 있다. 1박 2일 동안 열리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국제/외교 분야에 대한 학습 및 관련 진로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6월에는 도서벽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진행했으며, 10월과 11월 제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2173-3529

외국어연수평가원

2017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실시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실용외국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외국어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를 균형 있게 교육하는 20주 주간 및 야간과정, 단기간 실용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과정이 있다. 이 외, 주말 특별과정, 방학특별과정, 국가공인 FLEX시험 대비과정, 소수맞춤형 특별과정 등이 있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운영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로 설계되어 위탁기관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TÖMER 터키어 강좌 개설

HUFS와 터키 국립 앙카라대학교 간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운영된 TÖMER(퇴메르) 터키어 과정은 앙카라대학교 내 동명의 교육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대학부설 터키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매년 2, 4, 8, 10월 각각 8주 일정으로 개강하며, 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하다.

문의 02-2173-2524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진행

DELE는 스페인 교육부의 이름으로 Instituto Cervantes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 커뮤니케이션 수준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HUFS는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기관이며 연 3차례(5월, 7월, 11월)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 스페인어 강좌 운영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력하여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을 개설하여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스페인어 강좌(초급 및 중급), DELE 시험대비반(B1, B2, C1) 등 모든 강좌는 원어민 강사가 직접 진행하며, 방학기간에는 DELE 시험대비 문법·어휘 집중강좌도 운영한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운영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 중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여 명이 수강해 온 본 과정은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좌다. 총 7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통번역 단기특강 개설

5주 동안 개설 및 진행되는 통번역 단기특강은 통번역의 기초를 다지어 보다 수준 높은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닦을 수 있는 단기과정이다. 2017년 신규 개설됐으며, 1월과 7월에 개강한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FLEX센터

기관맞춤형 어학평가 진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어 능력평가를 수시로 실시한다. 각 기관별 맞춤형 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채용, 인사고과, 승진, 파견, 어학능력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문의 02-2173-2530

통번역센터

전문 통번역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통번역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부부처, 공기업, 사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약 4천여 건의 전문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국회사무처 등 368기관과 680여 건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전문적인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문의 02-2173-2440 홈페이지 http://hufscit.com

한국어문화교육원

가을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번 가을학기는 9월 5일(화)부터 11월 21일(화)까지 진행되며, 타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인기가 높아 등록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0여 명이 증가했다.

문의 02-2173-2260

여름학기 한국어 단기과정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7월 26일(수)부터 2017년 8월 23일(수)까지 여름학기 한국어 단기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단기과정에는 중국, 일본, 투르크멘,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 32명이 참여했다. 본 과정은 한국어 공부 외에도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활동이 매우 진행된다.

문의 02-2173-2279

한국어 위탁·특별교육과정 실시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의 해외 대학 한국어 특별과정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공무원 특별과정, 태국 송클라대학 특별과정, 일본 천리대학 특별과정, 중국 학도학원 특별과정 등을 진행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Kapiolani Community College 특별과정, 아시아 우호재단 한국어통번역가 양성 특별과정, 니가타 현립대학 특별과정능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2173-2279

제40기 한국어교원양성과정(KFL) 수료식 진행

2017년 여름학기 제40기 한국어교원양성과정(KFL) 수료식을 7월 28일(금) 개최하였다. 지난 7월 5일(수)부터 4주간 한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의 언어권별 맞춤 수업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본 과정 수료자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시험대비 무료특강의 특전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2173-2610

TESOL전문교육원

2017학년도 전기 수료식 및 후기 입학식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2017학년도 전기 수료식 및 후기 입학식을 각각 8월 18일(금)과 8월 19일(토)에 개최했다. 이번 전기 수료식을 통해 배출된 수료 및 이수자들은 추후 영어교육전문가로서 꿈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후기 입학식에는 지난 5월과 7월에 나누어 진행된 입시전형에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2018학년도 전기 교육생 모집일정 공고

TESOL전문교육원은 2018년 2월 26일 개강을 목표로 하는 2018학년도 후기 과정생 모집전형(일반전형, 1차 모집)을 2017년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자료읽기와 영어 면접전형을 치르게 될 예정이며 이 과정을 통과한 인원은 내년 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차 모집인 특별전형은 2018년 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7학년도 후기 수강자 대상 인턴십 설명회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9월 말 중 주중과 주말, 두 차례에 걸쳐 해외 대학 인턴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에서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캐나다 셀커크대학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교육원의 경우, 국내 대학에서 진행하는 TESOL 자격증 과정 중 유일하게 해외대학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교육원

2017년 삼성인력개발원 1차-SGPL, 2차-SGPL 글로벌인력양성과정 입소식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원장 박중찬, 생명공학과 교수)은 5월 8일(월), 2017년 삼성인력개발원 1차-SGPL 글로벌인력양성과정 입소식을 가졌으며, 6월 12일(월)에는 2차-SGPL 입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각 담당자의 언어능력 및 현지 비즈니스 수행능력을 극대화를 위해 진행됐다.

2017년 삼성인력개발원 힌디어 어학집중과정(3차) 입소식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은 5월 29일(월), 2017년 삼성인력개발원 힌디어 어학집중과정(3차) 입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인도지역 지역전문가 19명의 언어능력 및 현지 비즈니스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2017년 GS칼텍스 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입소식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은 6월 12일(월), 2017년 GS칼텍스 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입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중국지역 지역전문가 5명의 언어능력 및 현지 비즈니스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2017년 삼성인력개발원 하반기 주재원 파견 전 집중어학과정 입소식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은 8월 28일(월), 2017년 삼성인력개발원 하반기 주재원 파견 전 어학집중과정 입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해외 주재원 파견 예정인 임직원 31명이 참여했다.

2017년 단양군 SUMMER 영어캠프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은 7월 24일(월), 단양군 소재 초·중등생 79명을 대상으로 2017년 단양군 SUMMER 영어캠프 입소식을 진행했다. 6박 7일 동안 진행된 이번 캠프는 지역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 극복 및 자신감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51
동문 소식

52
주요동문 인사

53
발전기금 소식

54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HUFS

Alumni & Donation

외대 남가주 동문회, 팔순 잔치로 선배들 노고 기려

외대 남가주 동문회(회장 이영기)가 8월 19일(토)에 미국 샌타바바라에서 आय회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은 남가주 동문회가 팔순을 맞은 동문 선배들을 대상으로 팔순 잔치를 겸한 것으로, 선배들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남가주 동문회의 유춘식 사무총장(영어과 75)은 “동문들의 단결과 친목을 다지고 동문회 발전에 헌신한 선배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동문들은 숯불갈비, 굴비구이의 메뉴로 맛있는 점심을 마친 후 토로 캐년 공원에서 보물찾기, 피구 등의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황인자 동문, 대한민국 청소년 112 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황인자 동문(영어과 74)이 7월 15일(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112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는 황 동문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초·중·고등 학생 및 대학생들과 학부모, 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행사를 가졌다.

설균태 동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회 선임

설균태 동문(영어과 59)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8기는 9월 1일(금)에 임기가 시작되어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본 자문회에서 중앙상임위원은 남북평화통일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제의함과 아울러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주동문연합회 황한주 회장에게 총장 감사장 전달

재 과테말라 외대동문회장이자 미주동문연합회 회장인 황한주 동문(스페인어 83)이 8월 23일(수), 김인철 총장의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전용갑 글로벌 캠퍼스 행정지원처장(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은 과테말라 시티를 방문하여 김 총장 대신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는 과테말라 동문회가 7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과테말라 안티구아에서 개최된 '제4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미주동문연합회 정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 낸 데 대한 감사를 표한 것이다.



동문출간



김영호(영어과 65)
『머리트도서관의 사계』
(문학아카데미)



권순용(스페인어 78)
『퇴직은 있어도 은퇴는 없다』
(유심출판사)



권진택_경영84
연합뉴스TV 시청자센터장 겸 고충처리인
김상연_스페인86
서울신문 사회2부장
김진홍_영어81
KBS 제작본부장
도재기_아랍84
경향신문 국제·기획에디터
류기혁_정치외교83
서울신문 편집국 편집2부 선임기자
박상숙_태국91
서울신문 문화부 부장
박태서_영어86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제부장
안수훈_행정82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유경수_마인86
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장
이영일_영어88
KBS 춘천방송총국 보도국장
이장원_영어92
연합인포맥스 산업증권부장
이창섭_영어81
연합뉴스TV 경영기획실장
이충형_프랑스85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과학·재난부장
임진택_독일93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탐사플러시팀장
임철재_아프리카84
서울신문 사업단 부단장
정영수_국제통상86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매거진본부장
정재경_경제81
광주일보 편집2부 부국장
정지영_법학86
KBS 미래사업본부 콘텐츠사업국장
정창준_스페인88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뉴스제작2부장



김기중_스페인82
코트라 전시컨벤션실장
김기현_스페인81
한국관광공사 경상공문부장
김남천_프랑스86
한국관광공사 비서팀장
김만식_행정87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본부 조직예산부장
김차중_행정79
한국가스공사 통합보안처장
김태웅_이란81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장
김태윤_일본85
한국관광공사 노무팀장
박영하_국제통상79
코트라 강원KOTRA지원단장
박찬길_스페인86
코트라 대구경북KOTRA지원단장
안혜성_프랑스83
무역보험공사 리스크총괄실장
이경철_법학88
무역보험공사 국외보상채권부장
이관규_중국91
코트라 시안무역관장 2직급(부장)
이관석_아랍84
코트라 소비자사업실장
이승민_법학85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장
이정환_법학92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자격관리부장
전형표_법학85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고객지원부장
정지현_국제통상89
무역보험공사 증권기업팀장
조승욱_법학89
무역보험공사 채권관리팀장
조일규_독일91
코트라 소비자팀장
한연희_스페인어통번역90
코트라 수출지원기반활용팀장
함경준_독일어교육80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단장
황재원_중국87
코트라 동북아사업단장



김기형_독일85
한국연구재단 정산실장
김부년_법학8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_스페인84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동준_영어92
국회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민정_프랑스어교육00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국제보훈과장
이재용_영어87
기획재정부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
(중국유한공사 심양분행장)
임재주_국제통상84
국회 법제실장



김희태_경영정보87
광주은행 참실지점장
박선유_마인85
알리안츠생명 영업교육 본부장
신권식_경제92
산업은행 벤처기술금융실 팀장
안병희_국제통상82
KEB하나은행 청량리 겸 청량리역 지점장
오명석_영어83
KEB하나은행 상무중앙로지점장 겸 상무
이봉찬_아랍81
우리은행 금융센터 개인지점장
이상국_영어83
우리은행 인사부 부장대우
임형엽_경영88
IBK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 드림기업지점장
장경중_영어86
IBK기업은행 김포대곶 드림기업지점장



박응서_국제통상82
한국금융연수원 감사실장

‘스마트도서관 건립 보고 : 기부자 감사의 밤’ 행사 개최

9월 12일(화) 저녁 7시, ‘스마트도서관 건립 보고 : 기부자 감사의 밤’ 행사가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도서관 건립기금, 장학금 등 우리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및 동문들에게 스마트도서관 건립의 진행상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지금까지의 기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스마트도서관 건립기금 등 우리대학의 주요 기부자와 단위동문회(학과, 직장, 직능)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양어대 이탈리아어과, 2017학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 개최

서양어대 이탈리아어과(학과장 김시홍 교수)는 9월 5일(화) 본관 3층 학과사무실에서 2017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학기 장학생은 총 6명이며, 전성철장학생으로는 네 명의 학생이 각 150만원의 장학금을, 학과 창립 50주년 장학금으로는 두 명의 학생이 각 15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관수 이탈리아어과 동문회장과 전성철 동문을 비롯하여 학과 교수진 다수가 참가하였으며 신 학기를 맞이하여 구성원들이 하나되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세방그룹 이상웅 회장, HUFS에 그림 기증

세방그룹 이상웅 회장이 기증한 옥산 김옥진 화백의 그림이 7월 20일(목), 본관 1층에 설치됐다. 이 작품은 전통 화맥을 계승하고 승화시킨 옥산의 1960년대 수묵담채화 작품으로, 이 회장이 올해 6월 HUFS 지식출판원에서 전자책 『밀포도 여행기』를 발간한 인연으로 해당 작품을 기증했다.



제31대 한국외대 총동문회 출범식 및 민동석 회장 취임식 진행

제31대 한국외대 총동문회 출범식 및 민동석 회장 취임식이 7월 9일(일), 미네르바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페이스북 live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풀뿌리동문회, 온라인동문회, 멘토링 등 31대 주요사업에 대해 동문들 및 재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외대 4.19 민주혁명 동지회, 금강송 기념식수 개최

외대 4.19 민주혁명 동지회 금강송 기념식수가 6월 23일(금), 미네르바동산 4.19 기념비 앞에서 열렸다. 동지회 이기후 동문(프랑스어 59)이 기증한 금강송 50주를 기념식수 했던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은구 대외협력처장은 “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이 외대 4.19 민주혁명 동지회에서 기증해주는 금강송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선배들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외대인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Donation List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2017. 6. 1. - 2017. 8. 31.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강석영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72	240,000	이중섭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0	2,400,000
강정훈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00	240,000	이준호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6	1,200,000
구민구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2	1,200,000	이형철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71	240,000
권기대	법과대학 법학과 94	600,000	임동지	서양어대학 노어과 65	360,000
김경만	영어대학 영어과 82	480,000	임효상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7	600,000
김기민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90	600,000	장욱재	경영대학 경영학과 92	120,000
김기은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14	360,000	장해일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79	240,000
김대규	대학원 법학과(박) 11	120,000	전정환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56	120,000
김대호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91	2,400,000	전지선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00	360,000
김덕수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89	720,000	정광수	경영대학원 국제금융학과(석) 00	120,000
김동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88	500,000	정봉선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86	120,000
김민성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06	120,000	정순자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91	1,200,000
김선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4	2,400,000	정승화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99	1,200,000
김성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89	10,000,000	정영조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74	3,000,000
김수희	서양어대학 노어과 65	600,000	정한철	영어대학 영어과 55	720,000
김승동	서양어대학 노어과 73	1,000,000	정휘영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98	1,200,000
김영신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91	120,000	정희걸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07	240,000
김용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95	480,000	조갑동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65	240,000
김우석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99	120,000	조동식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69	1,200,000
김인주	경영대학원 경영·금융학과(석) 08	120,000	최공식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60	360,000
김정기	대학원 러시아·동유럽지역학과(석) 88	600,000	최병선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06	120,000
김종률	서양어대학 노어과 65	360,000	최인호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99	120,000
김진규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85	720,000	최희준	법과대학 법학과 86	360,000
김형하	법과대학 법학과 03	600,000	하정수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81	1,200,000
나은하	영어대학 영어과 95	240,000	허호관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11	240,000
노영호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76	1,000,000	홍의표	상경대학 경제학과 00	1,200,000
류하영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03	360,000	황태기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9	240,000
문병렬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75	360,000	황한주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3	2,228,260
문현성	법과대학 법학과 98	3,600,000	권경애	외대교수	6,000,000
박경식	법과대학 법학과 87	600,000	김현택	외대교수	5,000,000
박경진	경영대학 경영학과 98	340,000	박경은	외대교수	18,000,000
박관수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84	15,000,000	박남웅	외대교수	1,080,000
박길장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66	240,000	박동원	외대교수	2,000,000
박남규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77	360,000	신정아	외대교수	600,000
박명석	영어대학 영어과 57	10,561,500	안인경	외대교수	1,200,000
박민철	경영대학 경영학과 86	360,000	이성룡	외대교수	5,000,000
박선종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81	1,200,000	임한택	외대교수	600,000
박순원	영어대학 영미문학전공 00	600,000	장은영	외대교수	4,800,000
박재호	공과대학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86	600,000	정기업	퇴직교원	200,000,000
박재홍	법과대학 법학과 87	120,000	홍순혁	외대직원	360,000
박형규	영어대학 영어과 60	420,000	익명	학부모	30,000,000
방시영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68	500,000	익명	학부모	30,000,000
배소연	법과대학 법학과 07	360,000			
배지환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81	120,000			
변원섭	영어대학 영어과 81	120,000			
서승일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240,000			
석영완	서양어대학 노어과 65	360,000			
손창민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공공감사·정책학과(석) 05	360,000			
송민희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74	360,000			
송진호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95	600,000			
안병희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82	500,000			
양재성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63	120,000			
오승준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82	600,000			
우재만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1	4,800,000			
유영초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2	240,000			
윤영기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07	240,000			
윤은경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91	360,000			
윤웅택	법과대학 법학과 73	360,000			
이무형	법학전문대학원(석) 14	240,000			
이상식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79	2,520,000			
이옥성	영어대학 영어과 76	2,400,000			
이용호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93	120,000			
이정미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84	36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세무사조성자사무소	기타(기업)	1,000,000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기타(기업)	2,250,000
시사일보언사	기타(기업)	4,500,000	(재)가송재단	기타(단체)	3,000,000
에어비엔비코리아	기타(기업)	3,000,000	(재)동화산업 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0
울곡출판사	기타(기업)	300,000	(재)우석문화재단	기타(단체)	3,000,000
주KT	기타(기업)	4,218,500	(재)조준장학재단	기타(단체)	6,721,000
주식회사 하나은행	기타(기업)	3,000,000	(재)흥한재단	기타(단체)	21,000,000
주식회사나이스관광	기타(기업)	10,000,000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기타(단체)	15,500,000
케이티앤지 남서울본부	기타(기업)	500,000	과천시이해향장학회	기타(단체)	3,287,000
키다리영어사	기타(기업)	2,500,000	광주시민장학회	기타(단체)	1,500,000
			남장장학재단	기타(단체)	7,500,000
			두산연강재단	기타(단체)	3,360,500
			롯데장학재단	기타(단체)	58,617,500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기타(단체)	33,000,000
			미래의동반자재단	기타(단체)	6,721,000
			본술김중한장학재단	기타(단체)	3,360,500
			사단법인 휴먼인러브	기타(단체)	500,0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193,718,450
			생명보험협회	기타(단체)	5,000,000
			서울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0
			성육문화재단	기타(단체)	7,216,000
			세계민속문화축전 준비위원회	기타(단체)	30,000
			아산사회복지재단	기타(단체)	47,126,000
			엘트웰민초장학재단	기타(단체)	6,721,000
			외대교회	기타(단체)	1,000,000
			우정장학문화재단	기타(단체)	1,500,000
			이스테파노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3,855,500
			재단법인 김준기재단	기타(단체)	6,721,000
			재단법인 문숙장학재단	기타(단체)	2,4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1,500,000
			재단법인천만장학회	기타(단체)	6,721,000
			정수장학회	기타(단체)	28,122,000
			포스코청알재단	기타(단체)	15,824,000
			하림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기타(단체)	8,221,000
			해성문화재단	기타(단체)	3,368,500
			현대차정몽구재단	기타(단체)	10,816,000
			현마육역재단	기타(단체)	39,862,000
			형애장학회	기타(단체)	16,802,500
			홀트아동복지회	기타(단체)	3,000,000
			홍산장학재단	기타(단체)	4,000,000

만만해 萬萬惠 캠페인

외대가족 1만명이 매월 1만원씩 기부하여
외대인 모두가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의 캠페인입니다.

후원금액 : 월 1만원부터

문의 : 발전협력팀 02-2173-2756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부금 약정(기부)서

기 부 인	성 명(상호)				주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 자 택					
		☐ 직 장					
	인 적 사 항	근 무 처				부서/직위	
연 락 처				E-mail			
구 분		동 문	학과명		입학 연도	년	
		비동문					
기부 지정분야			☐ 학교발전기금 ☐ 도서관건립기금 ☐ 학교발전기금 : 대학 과 ☐ 장학기금 : 대학 과 또는 장학명 : ☐ 지정기부금 :				
약정(기부) 총액			☐ 현금 원		☐ 현물 원		
납부 기간 · 방법	일 시 납		☐ 1회 완납 (금 원) 년 월 일 납부(예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분 납 (자동이체)		☐ 월납부액 (원, 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이체일 : ☐ 15일 ☐ 말일				
	분 납 급여공제 (교직원용)		☐ 월납부액 (원, 회) 사 번 ()				
기부 권유자			성명 : 연락처 :		*기재하신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위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우편)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tund.hufs.ac.kr)를 통해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발전기금의 약정 및 기부처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예우, 기부내역 관리,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자택주소 또는 직장주소), 연락처(자택 전화번호 또는 직장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자동이체 시), 사번(급여공제 시)
• 선택항목 : 위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부자 정보에 대한 기록 보존이 필요한 시기까지 보관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기부금 약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부자 예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부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항목 미 작성 시 기부처리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부입력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우리 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 발송 및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성명,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글로벌대학으로서 개교 62주년을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취 거부 연락 주실 곳
발전협력팀 전화 : (02)2173-2756 이메일 : hufs5@hufs.ac.kr

붙이는 곳

접는 선



접는 선

보내는 사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9.2~2018.9.1

동대문우체국
제40122호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 2 4 5 0



응답하라 1967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들의 무대를
기억하시나요

응답하라
1967



1967년 공연된 '제5회 독어연극' 공연의 한 장면

사진 속의 외대인을 찾습니다.

GLOBAL HUFS는 2017년부터 한국외대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코너를 운영합니다. 본인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거나 혹시 사진 속의 인물들 중 아는 인물이 있으시면 한국외대 전락홍보팀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당시의 사진 속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문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전락홍보팀 연락처 02-2173-2093 이메일 potatohyun@hufs.ac.kr